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울고 있다

전남, 다문화 부부 이혼 급증 ... 가정해체 사회문제로  
자녀들 애정결핍·언어장애·정서불안 해소 대책 시급

전남지역 다문화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한부모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배려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한부모 아래서 성장할 경우 애정 결핍과 언어장애, 정서불안 등 이종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남지역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536건으로 2013년 501건 보다 35건(6.53%) 늘었다. 이는 전남지역 전체 이혼 건수의 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남지역 전체 이혼 건수가 4135건(2014년)으로 전년 4096건보다 36건(0.94%) 줄어든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이 다문화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한 반면, 혼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2014년 다문화 부부 혼인 건수는 1083건으로 전년 1193건으로 110건(10.15%) 줄었다.

특히 다문화 부부 이혼 평균 연령은 38.0세(여성 기준)로, 한국인 부부 평균 43.4세보다 낮고 결혼생활 기간도 5년 미만 차(45.2%)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 2쌍 중 1쌍이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뒤 결별한 셈이다.

전남지역 일반 부부의 이혼율 감소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첫 만남부터 '불행의 싹'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

### ■ 전남 다문화부부 혼인·이혼 건수

	결혼	이혼
2013년	1193	501
2014년	1083	536

※ 이혼 부부 45%가 결혼생활 5년 미만

에서 언어·문화·연령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2세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다문화 2세대들이 언어장벽과 차별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이탈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이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적 차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과 이웃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다문화 부부의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주입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다문화 부부를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은 가정 해체 추이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는 지금 '장미 나라' 이번 주말에는 향긋한 '장미꽃 나라'를 둘러보자. 조선대 장미축제가 19일 개막, 21일까지 대학 장미원(8299㎡)에서 열린다. 227종 1만7994주의 장미가 내뿜는 꽃향기로 가득하다. 축제 기간 마술, 밴드 공연, 음악회 등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대학 설립 70주년 사진도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막판에 여야가 합의해 이날 처리됐다. 그러나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물론 야당이 강조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 19대 국회 130여건 벼락치기 하고 '끝'

탄소법 통과 전북 탄소밸리 탄력  
규제프리존·사시존치법 등 무산

국회는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을 인허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계와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일명 탄소법)이 통과됐다. 탄소법은 효성그룹의 주도 하에 전북에 '탄소 밸리'를 조성,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 연말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경제활

## 귀농·귀촌 바람에 전남이 젊어진다

30대~50대 청장년층  
3년 간 2만 여명 유입  
정주기반 등 지원 시급

전남지역 귀농·귀촌 세대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전남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30대~50대 청장년층 인구유입은 물론, 전남지역의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막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이 더 젊어지기 위해선 귀농·귀촌사업 등 지역의 정주기반과 일자리를 갖추면서 농어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진도 등 9개 시군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 세대 수는 모두 9626세대다. 인구 유입만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2255세대 ▲2013년 2763세대 ▲2014년 4608세대 등으로, 유입된 세대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268세대 ▲60대 1907세대 ▲30대 이하 1584세대 ▲70대 이상 886세대 등이다. 이 같이 30대~50대의 귀농·귀촌

세대율은 전체의 70.98%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전남에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은 물론 인구증가 효과까지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시·군별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을 보면 담양이 45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안 451세대 ▲화순 408세대 ▲함평 372세대 ▲진도 264세대 등의 순이었다. 반면 유치실적이 가장 저조한 시·군은 광양(58세대)·강진(93세대)·여수(99세대) 등의 순이었다.

유치실적이 높은 시·군의 대다수는 국·도·시군비를 투입, 귀농상담센터 운영·체험장·귀농정책지원·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진도 등 9개 시군이다.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귀농'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선 귀농·귀촌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인구도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힘든 노동·토착민과 갈등·소득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5월 무더위 ☀️ 광주 32도

여름 날씨 22일까지 계속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휴일인 2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일 최고기온이 평년(낮 최고 22~27도)보다 6~7도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더위는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가

열린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 한반도 인근에 정체하고 있는 고압대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다가 23일에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농협 3대 시책 성과 ▶16면  
新 팔도유람 강릉 단오제 ▶18면



##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